

扁鵲의 行蹟과 名義에 관한 考察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敎室 金勳

Study of the achievements and name of Pyunjak

Kim Hoon

Pyunjak is presumed to be Jinwallin who was active in early Chunchu period among five identically called doctors from early Chunchu period to Warring period. The name, Pyunjak, seems to be used as "special local doctor who goes around the country". This reflects the social atmosphere of the time that medical science and art were getting developed from royal household and government centered medicine to civilian-centered medicine.

1. 들어가는 글

扁鵲은 後漢代의 華佗와 함께 東洋醫學의 대표적 名醫로 거론되고 있다. 扁鵲은 대체적으로 戰國時代에 활동하여 望聞問切, 특히 脈診에 뛰어났으며, 실제 臨床治療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扁鵲에 관한 행적은 『史記·扁鵲列傳』을 기본으로 하여 거론되는데, 扁鵲에 관한 記錄이나 言及은 「列傳」 이외에도 『戰國策』 『法言』 『韓非子』 『列子』 『韓詩外傳』 『論衡』 『新語』 『淮南子』 『鹽鐵論』 『說苑』 『鶡冠子』 등의 여러 文獻에 散在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文獻에 나타난 扁鵲의 행적을 취합해 보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즉, 열거된 문헌의 시기나 활동연대를 고찰해 보면 扁鵲이 결코 동시대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또한 「列傳」에 언급된 대로 扁鵲의 本名이 秦越人이라면 越人에게 ‘扁鵲’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붙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本考에서는 扁鵲에 관한 行蹟 및 名稱의 意味를 고찰해 봄으로써 扁鵲의 稱號가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닌 春秋戰國時代에 형성되어 전국을 遍歷한 專業醫師集團의 代名詞이었으며, 또한 醫學이 宮中이나 官을 벗어나 民間에 傳播·發展되기 시작하는 醫學的 時代狀況의 反映이자 表出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扁鵲’은 한 사람뿐인가?

扁鵲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의문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扁鵲에 관한 여러 문헌기록을 취합하여 그 活動年代를 계산해 보면 쉽게 갖게 되는 의문이다. 즉, 散在된 文獻記錄上으로는 적어도 扁鵲이 300년 이상을 살아서 활동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史記本傳』의 기록에 의하면 扁鵲의 생활년대의 上限線은 晉獻公(기원전 676-651) 災虢以前이며 그 下限線은 田齊桓公午(기원전 374-357)가 죽은 이후이다. 『戰國策·秦策』의 기술에 의거하면 扁鵲은 일찍이 秦武王을 會見하였는데 그렇다면 下限線이 기원전 4세기말이 된다. 上述한 兩書의 記載에 근거하면 활동한 시기가 350년 이상이 된다¹⁾. 이러한 矛盾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日本의 에도(江戶)時代에 淺井圖南이 扁鵲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학설을 주장하였다(『扁鵲倉公列傳割解』, 1766년)²⁾.

『史記·扁鵲列傳』을 보면 扁鵲이 晉나라 昭公시대의 大夫인 趙簡子를 진찰한 기록과 虢太子의 尸蹶病을 치료한 기록,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기록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먼저 이 세가지 記事의 내용을 중심으로 扁鵲의 活動時期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趙簡子 診察記事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기록은 「列傳」 외에 「世家」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나오는데³⁾ 문장에 있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뿐 줄거리는 거의 같은 내용을

1) 洪元植·尹暢烈,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62. (“晉獻公 災虢以前”이라 하였는데, ‘災虢’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아마도 ‘滅虢’의 誤植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가노우 요시미츠(加納喜光),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 51.

3) “趙簡子疾 五日不知人 大夫皆懼. 醫扁鵲視之 出 董安于問. 扁鵲曰 血脈治也而何怪! 在昔秦繆公嘗如此 七日而寤. 寤之日 告公孫支與子輿曰 我之帝所甚樂. 吾所以久者 適有學也. 帝告我 晉國將大亂 五世不安. 其後將霸 未老而死. 霸者之子且令而國男女無別. 公孫支書而藏之 秦識於是出矣. 獻公之亂 文公之霸 而襄公敗秦師於殽 而歸縱淫. 此子之所聞. 今主君之疾與之同 不出三日疾必閉 閉必有言也. 居二日半 簡子寤. 語大夫曰 我之帝所甚樂 與百神游於鈞天 廣樂九奏萬舞 不類三代之樂 其聲動人心. 有一熊欲來援我 帝命我射之 中熊 熊死. 又有一羆來 我又射之 中羆 羆死. 帝甚喜 賜我二笥 皆有副. 吾見兒在帝側 帝屬我一羆犬 曰 及而子之壯也 以賜之. 帝告我 晉國且世衰 七世而亡. 嬴姓將大敗周人於范魁之西 而亦不能

신고 있다. 또한 『史記』 이외에 『論衡』에도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기록이 나오는데⁴⁾, 이것도 역시 거의 같은 문장을 신고 있어서 『史記』의 기록을 전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趙簡子は 『孟子·滕文公下』에도 언급되는 人物로 晉나라의 막강한 실력자였다⁵⁾. 그런데 「列傳」부분의 기록에서는 趙簡子를 晉나라 昭公 때의 大夫로 말하고 있다⁶⁾. 昭公은 在位期間이 紀元前 532년에서 526년 사이이기 때문에⁷⁾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시점도 이 기간에 해당될 것이다. 다만 「列傳」과 달리 「世家」에서는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사건이 昭公 때가 아닌 定公 때(BC 512~475)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 「列傳」 → 昭公時, BC 532~526.

· 「世家」 → 定公時, BC 512~475.

『史記評林』의 注에서도 『索隱』을 인용하여 “『左氏傳』을 살펴보면 趙簡子가 國政을 專斷한 것은 定公과 頃公 때의 일이다. 따라서 이 일이 昭公 때의 일이 아닌 것이다. 또 「趙世家」에도 이 일이 실려있는데, 또한 定公의 初年 때의 일로 되어있다.”⁸⁾라고 하였다. 따라서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시점이 「列傳」부분과 「世家」부분에 있어 기록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世家」의 기록이 定公初라고 하였으므로 작게는 십 수년에서 크게 보면 약 20여년 정도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시간적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趙簡子라는 同一人을 진찰하고 있기 때문에—趙

有也。今余思虞舜之勳 適余將以其胄女孟姚配而七世之孫。董安于受言而書藏之。以扁鵲言告簡子。簡子賜扁鵲田四萬畝。”(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趙世家第十三 p. 1786.)

4) “趙簡子病 五日不知人。大夫皆懼 於是召進扁鵲。扁鵲入視病 出 董安于問扁鵲。扁鵲曰 ‘血脉治也而怪。昔秦繆公嘗如此矣 七日悟。悟之日 告公孫支與子輿曰 我之帝所 甚樂。吾所以久者 適有學也。帝告我晉國且大亂 五世不安 其復(後)將霸 未老而死。霸者之子 且令而國男女無別。公孫支書而藏之 于(秦)篋(策)於是 [出]。晉獻公之亂 文公之霸 襄公敗秦師於崤而歸縱淫 此之所謂。今主君之病與之同 不出三日病必間 間必有言也。’居二日半 簡子悟 告大夫曰 ‘我之帝所 甚樂。與百神游于鈞天 靡(廣)樂九奏萬舞 不類三代之樂 其聲動人心。有一熊欲授(援)我 帝命我射之 中熊 熊死。有羆來 我又射之 中羆 羆死。帝甚喜 賜我二笥 皆有副。吾見兒在帝側。帝屬我一翟犬 曰 及而子之長也 以賜之。帝告我 晉國且襄(衰) 十(七)世而亡 嬴姓將大敗周人於范魁之西 而亦不能有也。今余將思虞舜之勳 適余將以其胄女孟姚配而十(七)世之孫。’董安于受言而書藏之 以扁鵲言告簡子。簡子賜扁鵲田四萬畝。”(王充, 論衡, 北京, 中華書局, 1985, p. 234-235.)

5) 『孟子』에서는 趙簡子가 자신의 말물이꾼 王良으로 하여금 총애하는 신하 奚를 태워 사냥을 하게 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朱熹, 孟子集注上, 서울, 明文堂, 1983, p. 275-276.)

6) “當晉昭公時 諸大夫彊而公族弱 趙簡子爲大夫 專國事。”

7)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224.

8) “索隱曰 案左氏 簡子專國在定頃二公之時。非當昭公之世。且趙世家敘此事 亦在定公之初。”(凌稚隆, 史記評林, 東京, 富山房, 1984, 卷一百五 p. 2.)

簡子和 관련된 기록이 昭公 때의 기록인지, 아니면 定公 때의 기록인지 확정지를 수 없다 하더라도—아마도 趙簡子를 진찰한 扁鵲은 같은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附言한다면 趙簡子和 관련된 記事는 「世家」의 기록대로 定公 때의 시점이 더 정확하지 않나 추측된다. 그것은 「列傳」부분은 扁鵲을 중심으로 기술된 것으로 趙簡子는 어쩔 수 없이 周邊人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記述이 不正確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에, 「世家」부분은 그 記述의 중심이 趙簡子에게 있기 때문이다.

唐代 張守節의 『史記正義』에서도 “이 부분과 「年表」를 의거해 보면 趙簡子가 병에 걸린 것은 定公 11년이 된다.”⁹⁾라고 하였다. 따라서 「世家」와 『史記正義』의 기술이 더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扁鵲이 趙簡子를 診察한 시점은 晉定公 11년인 BC 501년이 된다고 생각된다.

2. 虢太子의 尸厥治療 記事

扁鵲이 虢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해준 記事는 「列傳」외에 『韓詩外傳』에도 수록되어 나온다¹⁰⁾. 그리고 「列傳」과 『韓詩外傳』의 기록은 내용의 詳略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虢나라에 대한 歷史를 찾아 扁鵲의 시기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扁鵲이 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했던 虢나라에 대해서 『史記評林』의 注에서는 『索隱』을 인용하여 “虢나라는 晉獻公이 멸망시켰는데, 이 때의 시점보다 120여년이나 앞선 일이다. 그러하니 이 때에 어찌 虢나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虢太子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虢나라는 후에 郭나라로 개칭되었고, 『春秋』에도 郭公이 있으므로 아마도 郭나라의 太子일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9) “據此及年表 簡子疾在定公十一年.”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p. 1786.)

10) “扁鵲過虢侯世子暴病而死. 扁鵲造宮曰 吾聞國中卒有壤土之事 得無有急乎. 曰 世子暴病而死. 扁鵲曰 入言鄭醫秦越人能治之. 庶子之好方者出應之. 曰 吾聞上古醫者曰弟父. 弟父之爲醫也 以堯爲席 以芻爲狗北面而祝之 發十言耳 諸扶輿而來者 皆平復如故. 子之方豈能若是乎. 扁鵲曰 不能. 又曰 吾聞中古之醫者曰俞跗. 俞跗之爲醫也 木屑木爲腦 芷草爲軀 吹竅定腦 死者復生. 子之方豈能若是乎. 扁鵲曰 不能. 中庶子曰 苟如子之方 譬如以管窺天 以錐刺地 所窺者大 所見者小 所刺者巨 所中者少 如子之方 豈足以變童子哉. 扁鵲曰 不然. 事故有味投而中蚊頭 掩目而別白黑者. 夫世子病 所謂尸厥者 以爲不然 試入診世子股陰當溫 耳焦焦如有啼者聲. 若此者 皆可活也. 中庶子遂入診世子 以病報 虢侯聞之 足跣而起 至門口先生遠辱 幸臨寡人 先生幸而治之 則糞土之息 得蒙天地 載長爲人 先生弗治 則先犬馬墳壑矣. 言未卒而涕泣沾襟. 扁鵲入 砥鍼礪石 取三陽五輸 爲先軒之灶 八拭之陽 子同藥 子明灸陽 子游按摩 子儀反神 子越扶形. 於是世子復生. 天下聞之 皆以扁鵲能起死人也. 扁鵲曰 吾不能起死人 直使夫當生者起. 死者猶可藥 而況生者乎. 悲夫. 罷君之治 無可藥而息也. 詩曰 不可救藥. 言必亡而已矣.” (韓嬰著林東錫譯, 韓詩外傳, 서울, 예문서원, 2000, p. 640-643.)

11) “索隱曰 案傳云 虢是晉獻所滅. 先此百二十餘年. 此時焉得有虢. 則此云虢太子非也. 然案虢後改稱郭.

虢나라는 歷史적으로 東虢, 西虢, 北虢의 세 나라가 있었는데, 모두 周王室의 近親인 姬姓의 나라로 西周가 들어선 후에 封地로서 세워진 나라들이었다. 西虢은 원래 周文王의 아우인 虢仲(혹은 虢叔)의 封地로 지금의 陝西省 寶鷄市에 자리잡았던 나라였다. 그후 西虢은 周平王이 洛陽으로 東遷할 때 上陽(河南省 陝縣)으로 옮기고 南虢이라 칭했는데, 이후 晉獻公에게 멸망당했다(BC 655년). 이외에 西虢이 上陽으로 옮길 때 원래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小虢이라 칭하였는데 南虢보다 먼저 秦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BC 687). 東虢은 원래 周文王의 아우인 虢叔(혹은 虢仲)의 封地로 지금의 河南省 滎陽에 있었다. 東虢은 鄭武公에게 멸망당했다는데, 멸망당한 시점이 春秋時代가 시작할 무렵인 BC 767년이기 때문에 西虢이 망한 시점보다 100여년 앞선다. 北虢도 虢仲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져 지금의 山西省 平陸縣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春秋時代 晉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다¹²⁾.

이 가운데 단순히 虢이라 부를 경우 虢은 周가 東遷한 이후의 西虢, 즉 上陽(河南省 陝縣)으로 옮긴 ‘南虢’을 말하는 것으로 黃河를 끼고 北虢과 마주하여 교통의 요충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¹³⁾.

前述한 『索隱』의 기록도 虢이 晉獻公에 의해 멸망당했다고 하였으므로 扁鵲이 치료한 虢太子를 西虢(南虢)의 태자로 본 것이며, 西虢(南虢)이 晉獻公에게 멸망당한 시점이 BC 655년이고, 扁鵲이 진찰한 趙簡子が 晉나라 昭公 때의 大夫로, 晉昭公은 前述한 바와 같이 在位期間이 紀元前 532년에서 526년 사이가 되므로 西虢(南虢)이 멸망당한 시점과 扁鵲이 趙簡子를 진찰한 시점이 약 120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列傳」의 기록대로라면 扁鵲이 虢太子를 치료해준 시점은 虢이 망하기 이전인 BC 655년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趙簡子를 診察한 扁鵲과 虢太子를 治療한 扁鵲이 약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記事이므로 同一人이 될 수가 없게 된다.

3.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記事

春秋戰國時代 齊의 桓侯로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春秋時代의 呂氏인 桓公小白으로 春秋五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며, 또 하나는 齊가 田氏로 주인이

春秋有郭公。蓋郭之太子也。”(凌稚隆, 史記評林, 東京, 富山房, 1984, 卷一百五 p. 4.)

12) 다음 세책을 參照하기 바람.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陳舜臣, 中國의 歷史2, 서울, 한길사, 1995.

臺灣中華書局辭海編輯委員會, 辭海,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6.

13) 가노우 요시미즈(加納喜光),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 53.

바뀐 戰國時代의 桓公午이다.

春秋時代의 桓公小白은 사망한 시점이 BC 643년으로¹⁴⁾ 異說이 없으나, 戰國時代의 桓公午는 사망한 시점이 기록상 다른 부분이 있어 확실하지 않다. 『史記·田敬仲完世家』의 기록을 보면 “桓公六年, 衛나라를 구하다. 桓公이 죽고 아들인 威王因齊가 세워졌다. 이 해에 齊나라의 康公이 죽었는데 후손이 끊어져서 奉邑이 모두 田氏에게 들어갔다.”¹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世家」에서는 齊康公이 사망한 해에 桓公午도 같이 사망했다는 것인데, 齊康公은 BC 379년에 사망했으므로¹⁶⁾ 桓公午도 그 해에 사망한 것이 된다.

그런데 「六國年表」에 의하면 齊康公이 죽은 것은 BC 379년으로 같지만 威王因齊의 卽位元年是 BC 378년으로 말하고 있어서¹⁷⁾ 桓公午가 BC 379년에 사망했었는지 아니면 1년 뒤인 BC 378년에 사망했었는지 불분명하다.

또 『索隱』에서는 “『竹書紀年』을 살펴보면 梁惠王 12년은 齊桓公의 18년에 해당한다. 그 후에 威王이 비로소 나오므로 桓公은 19년에 죽은 것이 되므로 이 부분과는 다르다.”¹⁸⁾라고 하였다. 즉, 桓公午가 卽位 6년이 아닌 19년에 사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BC 366년이나 BC 365년에 사망한 것이 된다. 또 南朝宋代 裴駟의 『史記集解』에서는 齊桓公午가 BC 357년에 사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¹⁹⁾.

이렇게 『史記』의 기록이 다른 기록들과 일치하지 못하고 부정확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²⁰⁾ 桓公午의 사망시점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 桓公小白의 사망시점 - BC 643년

· 桓公午의 사망시점 - BC 379년 「世家」

BC 378년 「六國年表」

14) 陳舜臣, 中國의 歷史2, 서울, 한길사, 1995, p. 124.

15) “六年 救衛. 桓公卒 子威王因齊立. 是歲 故齊康公卒 絕無後 奉邑皆入田氏.”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田敬仲完世家第十六 p. 1888.)

16) 陳舜臣, 中國의 歷史2, 서울, 한길사, 1995, p. 348.

17)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六國年表第三 p. 715.

18) “索隱 案紀年 梁惠王十二年當齊桓公十八年 後威王始見 則桓公十九年而卒 與此不同.”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田敬仲完世家第十六 p. 1888.)

19) 李伯聽, 扁鵲和扁鵲學派研究, 서울, 醫聖堂, 1991, p. 22.

20) 『史記』의 기록 가운데 戰國時代가 오히려 春秋時代보다 더 부정확하고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것은 春秋時代는 『春秋』라는 훌륭한 기록이 남아 있는 반면에, 戰國時代는 秦이 六國을 통일하면서 各國의 記錄을 불태워 없애버렸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陳舜臣, 中國의 歷史2, 서울, 한길사, 1995, p. 279-280.)

BC 366(365)년 『竹書紀年』

BC 357년 『史記集解』

이상과 같이 齊桓侯는 두 사람으로 사망한 시기가 같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扁鵲이 진찰한 齊桓侯가 春秋時代 桓公小白인지 아니면 戰國時代 桓公午인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史記評林』의 注에서는 索隱을 인용하여 “살펴보건대 傅玄은 ‘이 때에 齊나라에는 桓侯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裴駰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齊侯田和의 아들인 桓公午이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趙簡子와 더불어 상당히 합당한 것 같다.”²¹⁾라고 하였다. 그런데 『史記評林』의 기록대로 桓公이 小白이 아닌 午라고 할지라도 趙簡子の 시대와는 시대적으로 일치하기 어렵다. 前述한 바와 같이 趙簡子는 「列傳」과 「世家」의 기록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원전 5~6세기의 記事이므로 桓公午의 사망시점보다 약 120에서 140년을 앞서기 때문이다. 따라서 趙簡子를 진찰한 扁鵲과 齊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扁鵲이 同一인이 될 수가 없다.

4. 邯鄲과 雒陽 및 咸陽을 周遊한 記事

『史記·扁鵲列傳』의 末尾에서는 “扁鵲의 이름은 천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邯鄲을 지날 때에 婦人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즉시 婦人科 醫師가 되었고, 雒陽을 지날 때에는 周나라 사람들이 老人을 아낀다는 말을 듣고 즉시 耳目痺醫가 되었으며, 咸陽에 들어가서는 秦나라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아낀다는 말을 듣고 즉시 小兒醫가 되었다. 이처럼 扁鵲은 風俗에 따라 應變하였다. 秦나라 太醫令 李醯는 스스로 자신의 기술이 扁鵲만 못한 것을 알고서 사람을 시켜 扁鵲을 刺殺했다.”²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扁鵲이 趙나라의 수도인 邯鄲과 周나라의 雒陽 및 秦나라의 咸陽을 周遊하면서 醫療活動을 펼쳤으며, 마지막에는 秦나라에서 李醯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한 것이다.

‘邯鄲’은 歷史적으로 언제부터 건설되어 地名이 붙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21) “索隱曰 案傅玄曰 是時齊無桓侯. 裴駰云 謂是齊侯田和之子桓公午也. 蓋與趙簡子頗亦相當.” (凌稚隆, 史記評林, 東京, 富山房, 1984, 卷一百五 p. 9.)

22) “過邯鄲 聞貴婦人 卽爲帶下醫. 過雒陽 聞周人愛老人 卽爲耳目痺醫. 來入咸陽 聞秦人愛小兒 卽爲小兒醫. 隨俗爲變. 秦太醫令李醯自知伎不如扁鵲也 使人刺殺之.” (司馬遷, 史記[漢文大系七], 東京, 富山房, 1984, 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 p. 10-11.)

다만 ‘邯鄲’은 春秋時代에 원래 衛나라 땅이었다가 후에 晉나라에 속했는데, 戰國時代에 들어와 趙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雒陽’은 周代에 洛邑이라 했다가²³⁾ 戰國時代에 들어와 洛陽으로 바뀌고 漢代에 다시 雒陽으로 改稱되었다²⁴⁾. ‘咸陽’은 설치되어 地名이 붙게된 시점이 기록상 분명하게 나오는데, 『史記·秦本紀』에서는 秦孝公 12년에 秦나라가 咸陽을 만들어 수도로 삼았음을 말하고 있다²⁵⁾. 秦孝公 12년은 BC 350년에 해당하므로 扁鵲이 咸陽에 들어간 시점은 적어도 BC 350년 이후에 해당한다. 여기에 ‘洛陽’이 아닌 ‘雒陽’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서 扁鵲의 시점을 漢代以後로 잡는 것은 억측이 될 것이다. 그것은 司馬遷이 『史記』를 저술한 시점이 漢代여서 ‘雒陽’으로 기술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邯鄲과 雒陽 및 咸陽을 周遊하면서 醫療活動을 했던 扁鵲, 그리고 마지막에 秦나라에서 李醯에 의해 피살된 扁鵲은 그 시점이 적어도 BC 350년 이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趙簡子를 진찰했던 扁鵲이나 虢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했던 扁鵲과는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보이며, 同一人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齊桓侯를 桓公午로 보면 齊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扁鵲과는 많은 시간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同一人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史記』를 제외한 文獻上에 수록된 扁鵲의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蔡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記事

『韓非子』에서는 扁鵲이 蔡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나온다²⁶⁾. 그런데 그 이야기가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列傳」의 記事와 너무나 유사한 내용을

23) 周公 旦이 도읍인 鎬京이 서부지역에 치우쳐 있어서 統治에 불편함을 느끼고 동부지역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洛水유역에 제2의 도읍인 洛邑을 건설하였다.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101-102.)

24) 다음 두 책을 참조할 것.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臺灣中華書局辭海編輯委員會, 辭海,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6.

25) “秦孝公十二年 作爲咸陽 築冀闕 秦徙都之.”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秦本紀第五 p. 203.)

26) “扁鵲見蔡桓公 立有間. 扁鵲曰 君有疾在腠理 不治將恐深. 桓侯曰 寡人無疾. 扁鵲出. 桓侯曰 醫之好治不病以爲功. 居十日 扁鵲復見曰 君之病在肌膚 不治將益深. 桓侯又不應. 扁鵲出. 桓侯又不悅. 居十日 扁鵲復見曰 君之病在腸胃 不治將益深. 桓侯不應. 扁鵲出. 桓侯又不悅. 居十日 扁鵲望桓侯而還走 桓侯故使人問之. 扁鵲曰 疾在腠理 湯熨之所及也. 在肌膚 鍼石之所及也. 在腸胃 火齊之所及也. 在骨髓 司命之所屬 無奈何也. 今在骨髓 臣是以無請也. 居五日 桓侯體痛 使人索扁鵲 已逃秦矣. 桓侯遂死. 故良醫之治病也 攻之於腠理. 此皆爭之於小者也. 夫事之禍福 亦有腠理之地. 故曰聖人蚤從事焉.” (韓非, 韓非子[漢文大系八], 東京, 富山房, 1984, 卷第七 喻老 p. 8-10.)

수록하고 있다. 다만 「列傳」의 기록과 비교하면 진찰 기간이 5일이 아닌 10일인 것과 진찰의 대상이 齊桓侯가 아닌 蔡桓侯라는 것이 다를 뿐이다.

「十二諸侯年表」를 보면 蔡桓公은 BC 695년에 사망했으므로²⁷⁾ 이 記事는 齊桓公 小白보다 52년이나 앞선 것이며, 齊桓公午와는 300년 이상 앞선 일이 된다. 따라서 『韓非子』의 기록대로라면 齊桓侯를 진찰한 扁鵲 외에 별도의 扁鵲이 훨씬 이전에 활동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다른 扁鵲이 齊桓侯와 蔡桓侯를 별도로 진찰했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列傳」의 齊桓侯를 진찰한 기록내용과 『韓非子』에서 蔡桓侯를 진찰한 내용이 너무나 같아서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齊’와 ‘蔡’가 글자의 모양이 유사하여 『韓非子』에서 誤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²⁸⁾.

6. 秦武王을 진찰한 記事

『戰國策』에서는 扁鵲이 秦武王을 알현하여 진찰한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戰國策·秦上』을 보면 “醫師인 扁鵲이 秦武王을 알현하자 武王이 扁鵲에게 자신의 병을 보여주었다. 扁鵲이 병을 제거할 것을 청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말하길 ‘임금의 병은 귀(耳)의 앞부분과 눈(目)의 아랫부분에 있다. 이것을 제거하면 병이 반드시 낫지 못할 것이요, 장차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 말을 扁鵲에게 전하자 扁鵲이 노하며 砭石을 놓고 말하길 ‘임금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고서도 나중에 알지도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하여 일을 망치게 하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秦나라 國政을 맡기신다면 임금께서는 일거에 나라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²⁹⁾라고 記錄하고 있다.

秦武王은 재위기간이 BC 311~307이므로³⁰⁾ 秦武王을 진찰한 扁鵲은 戰國時代に 해당한다. 따라서 『史記』에 나타나는 扁鵲이나 『韓非子』에서 蔡桓侯를 진찰한 扁鵲과는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며 同一人이라고 볼 수 없다.

27)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十二諸侯年表第二 p. 563.

28) 『韓非子』는 戰國時代に 成書되어 『史記』의 編成時期보다 빠르다. 따라서 『韓非子』에서 ‘蔡桓侯’로 기록한 것이 더 옳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韓非子』가 傳寫되는 과정에 ‘齊’가 ‘蔡’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9) “醫扁鵲見秦武王 武王示之病. 扁鵲請除 左右曰 君之病 在耳之前 目之下. 除之未必已也. 將使耳不聰目不明. 君以告扁鵲. 扁鵲怒而投其石曰 君與知之者謀之 而與不知者敗之. 使此知秦國之政也 則君一舉而亡國矣.”(戰國策正解[漢文大系十九], 東京, 富山房, 1984, p. 26.)

30)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220.

7. 公扈와 齊嬰의 心臟移植手術 記事

扁鵲이 公扈와 齊嬰의 心臟을 移植手術한 이야기는 『列子·湯問』에 실려있다. 『列子·湯問』에는 “魯나라 公扈와 趙나라 齊嬰, 두 사람이 병이 들어 다같이 扁鵲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청하였다. 扁鵲이 치료하자 즉시 모두 나았다. 扁鵲이 公扈와 齊嬰에게 말하길 ‘그대들의 먼저의 병은 밖으로부터 내장을 침범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藥과 針으로 낫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들에게 함께 생긴 질병이 있는데, 몸뚱이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을 위해 그 병을 치료하고자 하니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길 ‘원컨대 먼저 그 증상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扁鵲이 公扈에게 말하길 ‘그대는 의지는 강하고 氣가 약하기 때문에 도모하여 피하는 바는 충분하나 결단성이 부족합니다. 齊嬰은 의지가 약하고 氣가 강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부족하고 독선적인 전재에 폐해가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의 심장을 바꾼다면 좋은 점으로 균등해질 것입니다.’ 扁鵲이 마침내 두 사람에게 毒酒를 마시게 하니 3일간 혼수상태가 되었다. 그 동안 두 사람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찾아내어 바꾸어 놓았다. 神藥을 먹이니 얼마 후에 깨어났고 처음과 같이 되었으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에 (齊嬰의 心臟을 移植받은) 公扈는 齊嬰의 집으로 돌아가 그 처자식을 거느리려 하였으나 처와 자식들이 (公扈로 보아) 알아주지 않았다. (公扈의 心臟을 移植받은) 齊嬰도 또한 公扈의 집으로 돌아가 그의 처자식을 거느리려 하였으나 처와 자식들이 역시 알아주지 않았다. 두 집안이 이로 인해서 서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扁鵲에게 사실을 가려주길 요구하였다. 扁鵲이 그렇게 된 이유를 分辨하여 설명하자 소송이 그치게 되었다.”³¹⁾라고 記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실제로 心臟移植 手術이 가능했었는가 하는 의문점으로 인해 기록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의 내용을 가공의 說話나 전설로 도외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당시에 扁鵲으로 불리던 名醫가 公扈와 齊嬰을 진찰하여 병을 心臟病으로 진단하고 탁월한 치료능력을 발휘했었는데, 후일 이러한 사실이 과장되거나 부풀려져 전해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魯公扈趙齊嬰二人有疾 同請扁鵲求治 扁鵲治之. 既同愈. 謂公扈齊嬰曰 汝曩之所疾 自外而干府藏者 固藥石之所已. 今有偕生之疾 與體偕長 今爲汝攻之 何如. 二人曰 願先聞其驗. 扁鵲謂公扈曰 汝志彊而氣弱 故足於謀而寡於斷. 齊嬰志弱而氣彊 故少於慮而傷於專. 若換汝之心則均於善矣. 扁鵲遂飲二人毒酒 迷死三日 剖胸探心 易而置之 投以神藥 既悟如初. 二人辭歸. 於是 公扈反齊嬰之室 而有其妻子 妻子弗識. 齊嬰亦反公扈之室 有其妻子 妻子亦弗識. 二室因相與訟 求辨於扁鵲. 扁鵲辨其所由 訟乃已.”(列禦寇, 列子[漢文大系十三], 東京, 富山房, 1984, 卷五·湯問 p. 17-18.)

公扈와 齊嬰에 관해서는 『列子』 이외에 다른 文獻上에는 그 記錄이 나오는 것이 없고, 다만 公扈에 관한 기록이 『公羊傳』과 劉向의 『說苑』에서 1번씩 나타난다. 『說苑』에서는 公扈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春秋』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했던 자는 교만하게 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했던 자도 오만하게 굴었다. 이처럼 태어나면서 부귀했던 자라도 거울을 보듯이 스스로 경계하고 살피지 않으면서 보전해 나간 자는 드물다. 『春秋』란 바로 나라의 거울이다. 『春秋』에는 그 임금을 죽인 사건이 36번, 나라를 망친 경우가 52번, 제후로서 도망하여 자기의 社稷을 보전하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을 먼저 보고도 뒤따라 똑같은 길을 가는 자들이 없지 않았다.”³²⁾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說苑』에 나오는 公扈子가 『春秋』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孔子가 『春秋』를 완성한 이후가 公扈子の 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公羊傳』에서는 『說苑』에 나오는 시점보다 이전에 公扈子를 거론하고 있다. 즉, 『公羊傳』의 魯昭公 31년의 기록을 보면 “公扈子者, 邾婁之父兄也”³³⁾라고 하여 公扈子를 거론하고 있다. 魯昭公은 BC 542년에 즉위하였으므로³⁴⁾, 昭公 31년은 BC 512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說苑』에 나오는 公扈子는 그 시점이 『春秋』가 끝나는 BC 481년 이후가 되며, 『公羊傳』에 나오는 公扈子는 BC 512년에 해당되어 적어도 31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게 볼 때 『公羊傳』과 『說苑』에서 각기 거론되는 公扈子가 同一人物인지 아닌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게 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公扈’가 複姓으로 ‘公扈子’는 특정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公扈氏’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文獻上 나타나는 公扈子の 기록만으로 扁鵲의 시점을 고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列子·湯問』에 公扈子와 관련한 扁鵲의 記事가 나오지만, 그 公扈子 가 『公羊傳』과 『說苑』에서 언급되는 公扈子와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扁鵲記事의 시점을 논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32) “公扈子曰 有國者不可以不學. 春秋 生而尊者驕 生而富者傲. 生而富貴 又無鑑而自得者 鮮矣. 春秋 國之鑑也. 春秋之中 弑君三十六 亡國五十二 諸侯奔走不得保社稷者 甚衆. 未有不先見而後從之者也.” (劉向著·林東錫譯, 說苑[上], 서울, 東文選, 1996, p. 114-115.) 譯本에서는 ‘春秋’를 春秋時代로 풀었으나 孔子의 『春秋』로 해석해야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春秋』로 국역했다.

33) 雪克, 新譯公羊傳, 臺北, 三民書局, 1998, p. 654.

34)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222.

8. 魏文侯와의 對話記事

『鶡冠子³⁵⁾』에서는 龐煖이란 사람이 卓襄王에게 한 말 가운데 扁鵲과 魏文侯의 대화내용을 들고 있다. 즉, 龐煖이 卓襄王에게 말하길 “왕께서는 유독 魏文王이 扁鵲에게 물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魏文王이 물기를 ‘당신의 형제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醫術이 뛰어난가?’라고 물으니, 扁鵲이 말하길 ‘큰 형님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 형님이 그 다음이며, 제가 가장 보잘 것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魏文王이 물기를 ‘그 까닭을 들을 수 있는가?’하니, 扁鵲이 말하길 ‘큰 형님은 환자의 神氣를 보고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의 원인을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명성이 집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약할 때에 미리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명성이 동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병이 깊어진 다음 血脈에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며 肌肉과 살갓을 갈라 치료를 하므로 이것을 보고 名聲이 諸侯들에게까지 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魏王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길 ‘훌륭한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³⁶⁾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魏文王은 魏文侯를 말한다. 魏文侯는 戰國時代를 열었던 한사람으로³⁷⁾ 孟子와의 問答으로 유명한 梁惠王의 할아버지가 된다. 魏文侯는 戰國初期의 諸侯들 가운데 覇者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사람인데, BC 446년에 집권하여 BC 403년에 諸侯로 칭했고, BC 397년에 사망했다³⁸⁾. 따라서 魏文侯는 집권기간이 약 50년에 걸

35) 作者未詳. 원래 鶡冠子は 春秋時代 楚나라 사람으로 鶡羽로 만든 冠을 쓰고 深山에 隱居하여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 『漢書·藝文志』에 ‘『鶡冠子』 一篇’을 道家書籍의 하나로 수록하고 있으며, 唐代에 와서는 16篇으로 늘어났고, 現存本은 宋代 陸佃이 注釋을 단 것으로 19篇에 이른다. 道德說과 黃老說, 刑名의 學을 섞은 내용이 주를 이룬다.

36) “煖曰 ‘王獨不聞魏文王之問扁鵲耶?’ 曰 ‘子昆弟三人其孰最善爲醫?’ 扁鵲曰 ‘長兄最善 中兄次之 扁鵲最爲下.’ 魏文侯曰 ‘可得聞邪?’ 扁鵲曰 ‘長兄於病視神 未有形而除之 故名不出於家. 中兄治病 其在毫毛 故名不出於閭. 若扁鵲者 鑿血脈 投毒藥 副肌膚 聞而名出聞於諸侯.’ 魏文侯曰 ‘善.’” (鶡冠子[四部備要第五三冊], 北京, 中華書局, 1989, 卷下世賢第十六 p. 32.)

37) 春秋時代가 시작되는 시점(BC 770)과 戰國時代가 끝나는 시점(BC 221)은 異說이 없다. 그러나 戰國時代가 시작되는 시점은 『春秋』가 끝나는 시점(BC 481), 『史記·六國年表』가 시작되는 시점(BC 475), 『竹書紀年』이 시작되는 시점(BC 468), 사실상 晉을 魏·韓·趙가 三分한 시점(BC 453), 東周王室에서 魏·韓·趙를 인정하여 諸侯가 된 시점(BC 403) 등으로 다섯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魏·韓·趙가 諸侯로 인정받은 BC 403년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司馬光의 『資治通鑑』도 威烈王 23년(BC 403)부터 시작된다.

38)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233.

치게 되는데, 扁鵲과 대화한 시점도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史記·魏世家』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文獻에서는 魏文侯가 扁鵲과 대화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文獻考證이 확실하지 않은 『鶡冠子』에서 魏文侯가 扁鵲과 대화한 이야기는 사실여부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 속에 扁鵲에게 두 형이 있었고 모두 醫師였다는 것은 다른 文獻에는 나오지 않는 特記할 만한 記事가 된다.

9. 宋과 衛를 遍歷한 記事

이밖에 『新語³⁹⁾』에서는 扁鵲이 宋나라 임금에게 罪를 얻어 衛나라로 망명했었는데, 衛나라에서 위독한 병자를 치료해 주고자 하였으나 환자의 아버지가 扁鵲을 믿지 않고 무당을 신뢰하여 患者가 죽게된 이야기도 수록하고 있다⁴⁰⁾. 그러나 이 기록만으로는 扁鵲이 어떤 罪를 지었는지, 그리고 ‘宋君’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宋나라는 BC 286년에 齊나라에게 망하였고⁴¹⁾, 衛나라는 BC 209년에 秦나라에게 멸망당했으므로⁴²⁾, 宋과 衛를 함께 遍歷한 이 기록의 扁鵲의 시점은 적어도 BC 286년 이전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文獻記錄을 聚合하여 扁鵲의 活動時期를 시대순으로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文獻記錄上の 扁鵲記事와 活動時期>

39) 『新語』: 原本은 漢代 陸賈가 撰한 것이나 現存本은 唐代以前에 假託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주로 崇王黜霸와 修身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40) “昔扁鵲居宋 得罪於宋君 出亡之衛. 衛人有病將死者 扁鵲至其家 欲爲治之. 病者之父謂扁鵲曰 ‘吾子病甚篤 將爲迎良醫治 非子所能治也.’ 退而不用. 乃使靈巫求福請命對扁鵲而呪 病者卒死靈巫不能治也. 夫扁鵲天下之良醫 而不能與靈巫爭用者 知與不知也. 故事求遠而失近 廣藏而狹棄 斯之謂也.” (陸賈, 新語[四部備要第五四冊], 北京, 中華書局, 1989, 卷下資質第七 p. 9.)

41)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p. 298.

42) 『史記·六國年表』에서는 秦二世(胡亥) 卽位元년에 “出衛君角爲庶人”이라 하여 衛나라가 秦二世元年인 BC 209년에 멸망당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六國年表第三 p. 758.)

記事內容	出典	時期
蔡桓侯의 疾病을 豫知함.	『韓非子』	BC 695년
虢太子의 尸蹶病을 治療함.	『史記』 『韓詩外傳』	BC 655년 이전
趙簡子를 診察함.	『史記』 『論衡』	BC 501년
魏文侯와 對話함.	『鶡冠子』	BC 446년 ~ 397년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함.	『史記』	BC 357년(?)
邯鄲·雒陽·咸陽을 周遊함.	『史記』	BC 350년 이후
秦武王을 진찰함.	『戰國策』	BC 311 ~ 307
宋과 衛를 遍歷함.	『新語』	BC 286년 이전
公扈와 齊嬰의 心臟移植手術	『列子』	?

따라서 『史記』에 수록되어 나오는 扁鵲의 記事만을 보더라도, 虢太子의 尸蹶病을 治療한 扁鵲, 趙簡子를 診察한 扁鵲, 齊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扁鵲이 同一人으로 보기에는 時代的 활동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으로 생각된다. 특히 趙簡子와 齊桓侯라는 특정 인물을 扁鵲이 진찰했고, 趙簡子와 齊桓侯는 歷史적으로 그 시점을 고증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扁鵲은 적어도 한 사람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虢太子도 前述한 바와 같이 『索隱』에서 郭太子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扁鵲을 同一人으로 생각해서 기록의 시대적 시점을 일치시키고자 牽強附會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적어도 기록대로라면 『史記』에 수록되어 나오는 扁鵲은 세사람이 된다고 생각된다. 물론 扁鵲에 관한 文獻記錄들을 說話나 傳說로만 간주하여 처음부터 그 실체를 의심한다면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論究할 扁鵲名稱의 由來와 意味를 생각해 보면 扁鵲이 여러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으며, 文獻記錄上의 扁鵲記事는 일차적으로 그 實在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史記』와 함께 文獻上 나타나는 扁鵲은, 『韓非子』에서 蔡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이야기가 『史記』의 齊桓侯의 질병을 豫知한 扁鵲의 記事와 너무 유사하여 同一人으로 보더라도, 虢太子의 尸蹶病을 治療한 扁鵲, 趙簡子를 診察한 扁鵲, 魏文侯와 對話한 扁鵲,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扁鵲, 秦武王을 진찰한 扁鵲이 각기 다른 인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各記事의 活動年代가 작게 보아도 40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때로는 15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文獻記錄上 扁鵲이란 이름을 가지고 醫療活動을 했던 ‘扁鵲’은 적어도 다섯 사람 이상이 되며, ‘扁鵲’이란 칭호를 역사상 가장 먼저 획득했던 인물은 虢太子를 치료한 秦越人이 아닌가 생각된다.

III. ‘秦越人’이란 이름과 扁鵲의 故鄉

前述한 바와 같이 文獻記錄을 살펴보면 ‘扁鵲’의 活動時期가 시대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扁鵲’이란 호칭은 당시에 醫療活動을 했던 醫師들 가운데 탁월한 治愈能力을 발휘했던 사람을 指稱하는 ‘一般名辭’였을 것이란 推論이 가능하다. 그리고 「列傳」에서는 扁鵲의 本名이 ‘秦越人’이라고 하였는데 ‘秦越人’이 실제로 이름인지, 또한 ‘扁鵲’의 故鄉을 文獻上 달리 말하고 있는데 扁鵲의 故鄉은 어디인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1. “秦越人”은 이름인가?

먼저 ‘秦越人’이란 이름을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姓名이 아닌 것 같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그것은 이름에 ‘人’字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地名이나 國名을 가리키는 ‘秦’과 ‘越’이 쓰여진 점 등으로 인해서 ‘秦越人’은 혹시 扁鵲의 出身地域과 관련된 말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衛聚賢은 『古史研究』에서 ‘秦越人’을 解析하면서 네가지 추론을 했는데⁴³⁾, 다음과 같다.

- ① ‘秦’은 中國을 말하고, ‘越’은 印度를 말함. 따라서 ‘秦越人’은 印度醫學을 배운 中國人을 가리킨다.
- ② 扁鵲은 醫術을 長桑君으로부터 전수 받았는데, 이후 秦나라 太醫令인 李醯가 자신의 醫術이 扁鵲만 못하다는 것을 알고 죽였다. 따라서 ‘秦越人’은 醫術이 秦人의 위에, 越人의 아래에 있다(秦人上 越人下)는 의미이다.
- ③ 印度醫學이 西北방면의 秦나라와 東南방면의 越나라를 통해 들어와서 印度醫學과 관련된 명칭이다.
- ④ 扁鵲이 秦나라에서 죽었는데, 越人의 기술을 전수 받았기 때문이다.

上述된 ‘秦越人’에 대한 추론은 ‘秦’을 때로는 中國으로 해석하고, 戰國時代 中國서부에 자리했던 秦나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越’도 때로는 印度로 해석하고, 春秋時代 中國 동남부에 자리하면서 越나라와 경쟁했던 越나라로 해석하기도 해서 서로 矛盾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증명할 歷史的 근거나 文獻史料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假說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列傳」에서는 분명히 扁鵲의 姓名을 ‘秦越人’으로 기록하고 있는데⁴⁴⁾, ‘秦’이 姓氏로 사용되기 시작한 유래를 보면, 秦氏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秦始皇의 長子인

43) 李伯聽, 扁鵲和扁鵲學派研究, 서울, 醫聖堂, 1991, p. 25-27.

扶蘇의 아들이 子嬰이었는데, 子嬰이 죽고 난 후에 그 庶子들이 ‘秦’을 姓氏로 삼아 시작되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秦나라의 후손들이 나라가 망한 후에 나라이름으로 姓氏를 삼아 시작되었는데 원래 秦나라의 嬴氏와는 다른 것⁴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秦氏는 秦나라가 망한 이후, 즉 漢代에 들어와서 생긴 姓氏가 된다. 즉, 秦越人을 姓名으로 볼 경우 漢代以後의 人物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文獻記錄上的 扁鵲에 관한 記事는 春秋時代나 戰國時代에 걸쳐 나타날 뿐, 漢代以後에 나오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秦越人’이 『史記』의 기록대로 姓名이 아닐 수 있고, 衛聚賢의 가설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秦氏姓이 존재해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史記·仲尼弟子列傳』에는 秦氏姓을 가진 인물로 생각되는 孔子의 弟子 네 사람을 열거해놓고 있다. 즉, 이들은 秦祖·秦冉·秦商·秦非 등인데, 『史記集解』에서는 鄭玄을 말을 인용해 秦祖은 秦나라 사람, 秦商은 楚나라 사람, 秦非는 魯나라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⁶⁾. 또한 『戰國策·燕策』에서는 荊可가 燕나라 太子 丹을 위해 秦始皇을 살해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燕나라 勇士로 13살에 이미 사람을 죽였을 정도로 기상이 거친 人物이었던 秦武陽을 副使로 삼은 이야기가 실려있다⁴⁷⁾. 여기에 秦武陽도 燕나라 사람이지만 秦氏姓을 가진 인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春秋戰國時代에 이미 秦氏가 존재했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秦越人’이 이름 자체의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史記』의 기록에는 분명히 姓名으로 말하고 있으며, 또 扁鵲이 스스로를 ‘越人’이라 칭하고 있는 것⁴⁸⁾으로 보건대 姓名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史記·扁鵲列傳』의 중요한 세

44) “扁鵲者 勃海郡鄭人也. 姓秦氏 名越人.”

45) “秦國之後 以國爲氏. 出於魯者 以邑爲氏 又有出於楚者. 雖同秦而不同嬴. 秦又姓. 秦目顛項後 子嬰既滅 支庶以爲秦氏也.”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華學術院, 1973, 卷六 p. 1606.)

46) “秦祖字子南(集解鄭玄曰秦人)~秦冉字開~秦商字子丕(集解鄭玄曰楚人)~秦非字子之(集解鄭玄曰魯人)”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仲尼弟子列傳, p. 2220-2224.)

47) “燕國有勇士秦武陽 年十三殺人 人不敢與忤視. 乃令秦武陽爲副.” (戰國策正解[漢文大系十九], 東京, 富山房, 1984, 燕策下 p. 17.)

48) 「列傳」에서는 魏太子的 尸蹶病을 치료해준 記事中 中庶子와 問答한 내용 가운데 扁鵲이 먼저 자신을 勃海의 秦越人으로 밝히고 스스로를 ‘越人’이라 칭했다. 또한 치료 후에도 “越人非能生死人也”라고 하여 ‘越人’으로 칭하고 있다.

가지 記事, 즉 趙簡子를 진찰한 기록, 號太子의 尸蹶病을 치료한 기록, 齊桓侯의 疾病을 豫知한 기록의 내용 가운데 扁鵲을 ‘秦越人’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號太子와 관련한 記事뿐이다. 따라서 姓名이 ‘秦越人’이었던 扁鵲은 號太子를 치료해주었던 春秋時代 초기의 人物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扁鵲의 故鄉

또한 扁鵲의 故鄉이나 出身地域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史記·扁鵲列傳』에서는 扁鵲에 대해 “勃海郡鄭人”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扁鵲이 勃海郡 소속의 鄭縣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文獻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漢書·地理志』를 보면 勃海郡은 漢高祖 때 설치되었고 아래에 26개의 縣이 있다고 하였는데⁴⁹⁾, 26개의 縣 가운데 ‘鄭’이라는 地名은 보이지 않는다⁵⁰⁾. 따라서 “勃海郡鄭人”이라는 記述에 信憑性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南朝宋代 裴駟은 『史記集解』에서 徐廣의 말을 인용하여 “‘鄭’字는 마땅히 ‘鄭’字가 되어야 한다. ‘鄭’은 縣名으로 지금의 河間에 속한다.”⁵¹⁾라고 하였으며, 唐代 司馬貞의 『索隱』에서도 “살펴보건대 勃海郡에는 鄭縣이 없으므로 마땅히 鄭縣이 되어야 한다. 鄭은 ‘막’으로 발음하고 지금의 河間에 속한다.”⁵²⁾라고 하였다. 『史記集解』에서나 『索隱』에서는 ‘鄭縣’이 아니라 ‘鄭縣’이라고 考證을 한 것인데,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것은 勃海郡에 ‘鄭縣’이 없고 『漢書·地理志』 전체를 통해서도 ‘鄭縣’이란 地名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鄭’은 『中文大辭典』에서 “鄭은 邑名으로 春秋時代의 蔡邑이다. 지금의 河南省 上蔡縣에 해당한다.”⁵³⁾라고 하고 있다. 또한 『說文解字』에서도 ‘鄭’을 ‘蔡邑’으로 말하

49) “勃海郡 高帝置. 莽曰迎河. 屬幽州. 戶二十五萬六千三百七十七 口九十萬五千一百一十九. 縣二十六.” (班固, 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地理志第八上 p. 1578-1579.)

50) 『漢書·地理志』에는 勃海郡 소속의 26개 縣을 기록하고 있다. 26개 縣名은 浮陽·陽信·東光·阜城·千童·重合·南皮·定·章武·中邑·高成·高樂·參戶·成平·柳·臨樂·東平舒·重平·安次·脩市·文安·景成·東州·建成·章鄉·蒲領 등이다. (上揭書, 같은 페이지.)

51) “徐廣曰 鄭當爲鄭. 鄭 縣名 今屬河間.”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卷一百五 p. 2786.)

52) “案 勃海無鄭縣 當作鄭縣 音莫 今屬河間.” (上揭書, 같은 페이지.)

53) “鄭 邑名. 春秋蔡邑. 在今河南省上蔡縣.”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華學術院, 1973, 卷九 p. 362.)

고 있다⁵⁴⁾.

蔡邑과 관련하여 『漢書·地理志』를 살펴보면 汝南郡에 新蔡縣과 上蔡縣이 있고⁵⁵⁾, 沛郡에 下蔡縣이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⁶⁾. 『漢書·地理志』의 기록에는 “上蔡縣은 옛날에 蔡國이었는데, 周武王의 아우인 叔度를 봉해준 땅이었다. 叔度が 추방되자 成王이 아들인 胡를 봉해주었는데 十八世에 新蔡로 옮겼다. 新蔡縣은 蔡平侯가 원래의 蔡邑에서 이곳으로 옮긴 것인데 後二世에 다시 下蔡로 옮겼다. 下蔡縣은 옛날에 州來國이었는데, 楚나라에 멸망당했고 이후 吳나라가 취했다. 夫差때에 이르러 昭侯를 이곳으로 옮겼다. 後四世인 侯齊때에 끝내 楚나라에 멸망당했다.”라고 하였다.

즉, 원래 蔡邑은 周王室 중친의 封地였는데, 上蔡에서 新蔡로 다시 下蔡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漢代에 들어와서 이러한 上蔡, 新蔡, 下蔡를 縣名으로 사용했는데, 上蔡와 新蔡는 지리적으로 가까워 같은 汝南郡에 포함시켰고, 下蔡는 이 지역과 거리가 있어 별도로 沛郡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史記集解』나 『索隱』에서 ‘鄭縣’이 아니라 ‘鄭縣’이라고 考證을 하였다 하더라도, ‘鄭’은 蔡邑인 上蔡·新蔡·下蔡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되므로 勃海郡이 아닌 汝南郡이나 沛郡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勃海郡鄭人”을 勃海郡의 ‘鄭縣’으로 보기에 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鄭’이 아니라면 「列傳」의 기록대로 ‘鄭’이 되어야 할 것이다. 『說文解字』에서는 “鄭 京兆縣. 周厲王子友所封. 从邑奠聲. 宗周之滅 鄭徙澮水之上 今新鄭是也.”⁵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즉, ‘鄭’이 지리적으로 두군데가 있어서 원래의 ‘鄭’지역은 周厲王의 아들이자 周宣王의 아우인 桓公友를 봉해주었던 땅으로 지금의 陝西省 華縣西北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후 春秋時代에 들어와 周平王이 東遷할 때 鄭사람들이 澮水의 위로 옮겨왔으며 이 곳이 漢代에 들어와 京兆尹이 관할하던 땅이 되었고, 지금의 河南省 新鄭縣이 된다는 것이다⁵⁸⁾. 따라서 ‘鄭’지역은 西周代에는 陝西省 華縣西北 지역에 해

54) “鄭 蔡邑也. 从邑昊聲. 春秋傳曰 鄭陽人女奔之.” (許慎, 說文解字,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 292.)

55) “汝南郡 高帝置. 莽曰汝汾. 分爲賞都尉. 屬豫州. 戶四十六萬一千五百八十七 口二百五十九萬六千一百四十八. 縣三十七. …新蔡 蔡平侯自蔡徙此 後二世徙下蔡. 莽曰新遷. …上蔡 故蔡國 周武王弟叔度所封. 度放 成王封其子胡 十八世徙新蔡.” (班固, 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地理志第八上 p. 1561-1562.)

56) “沛郡 故秦泗水郡. 高帝更名. 莽曰吾符. 屬豫州. 戶四十萬九千七十九 口二百三萬四百八十. 縣三十七. …下蔡 故州來國 爲楚所滅 後吳取之 至夫差遷昭侯於此. 後四世侯齊竟爲楚所滅.” (上揭書, p. 1572.)

57) 許慎, 說文解字,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p. 286.

58) 臺灣中華書局辭海編輯委員會, 辭海,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6, 下冊 p. 4403.

당되고, 春秋時代에 들어와서는 河南省 新鄭縣에 속하게 된다. 河南省 新鄭縣 지역은 春秋時代에 鄭國이 있었으며, 戰國時代에 들어와 鄭이 韓나라에 멸망당하고 韓나라의 수도가 되었다. 즉, 春秋戰國時代에 ‘鄭’이라고 일컫는 지역은 지금의 黃河以南의 河南省 중부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前述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漢代에 京兆尹 관할지역이었으며, 勃海郡과는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勃海郡鄭人”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列傳」에서 그 해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列傳」에서 扁鵲이 虢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해준 記事 가운데 扁鵲이 中庶子⁵⁹⁾에게 “臣은 齊나라 勃海의 秦越人입니다. 집이 鄭에 있어서 일찍이 太子의 威光을 바라보며 앞에서 모신 적이 없었습니다.”⁶⁰⁾라고 말한 부분이 나온다.

이 내용을 보건대 ‘勃海’는 春秋戰國時代에 齊나라, 즉 지금의 山東省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⁶¹⁾, 「地理志」에 나오는 대로 ‘勃海郡’은 漢高祖 때 처음 설치된 것이라 하여도 ‘勃海’라는 명칭은 이전에 이미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扁鵲이 스스로를 ‘勃海’사람이라고 하면서 집이 ‘鄭’에 있다고 한 것을 보건대, 아마도 ‘勃海’는 扁鵲의 貫鄉이나 本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에 扁鵲, 즉 虢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해준 ‘秦越人 扁鵲’은 ‘鄭’인 지금의 河南省 新鄭縣 지역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밖에 扁鵲의 故鄉을 달리 말하고 있는 기록도 나타난다. 唐代 楊玄操의 『難經集注·序文』에서는 “扁鵲은 黃帝軒轅氏 시대의 扁鵲과 서로 유사하여 ‘扁鵲’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집이 盧나라에 있어서 ‘盧醫’라고도 불리었다. 세상에서 혹은 ‘盧扁’을 두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것은 실제로 잘못이다.”⁶²⁾라고 하였으며, 明代 陳士元이 著述한 『姓觸』에서도 “醫術이 黃帝時의 扁鵲과 서로 흡사하여 ‘扁鵲’이라 칭하게 되었다. 집이 盧나라에 있어 盧醫라고도 칭한다.”⁶³⁾라고 하였다. 또한 漢代 揚雄의 『法言』에서는 “어떤 사람이 『黃帝終始』에 대해 물었다. 대답하기를 “黃帝에게 假託한

59) 古代의 官職名으로 諸侯卿大夫의 자녀교육을 담당했음.

60) “言臣齊勃海秦越人也. 家在於鄭 未嘗得望精光侍謁於前也.”

61) ‘勃海’를 ‘渤海’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渤海’는 遼東半島와 山東半島 사이의 바다를 의미하는데, ‘勃海’가 바로 ‘渤海’지역, 즉 遼東半島와 山東半島 사이의 沿岸地域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62) “以其與軒轅時扁鵲相類 乃號之爲扁鵲. 又家於盧國 因名之曰盧醫. 世或以盧扁爲二人者 斯實謬矣.” (凌耀星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1.)

63) “術與黃帝時扁鵲相類 故稱扁鵲. 家於盧國 又稱盧醫.” (陳士元, 姓觸, 北京, 中華書局, 1985, 銑韻 p. 187-188.)

것이다. 옛날에 妘氏인 禹임금이 水土를 다스릴 때에 무당들이 절룩거리는 禹임금의 걸음걸이(禹步)를 흉내내는 것이 많았다. 또한 扁鵲은 盧나라 사람인데 醫師 가운데 盧나라 사람이라 하는 것이 많았다. 무릇 가짜를 그럴듯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짜를 빌어 흉내내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진짜 禹임금이겠는가? 진짜 盧나라의 扁鵲이겠는가? 진짜 黃帝의 『終始』이겠는가?"⁶⁴⁾라고 기록하고 있다. 上述한 세가지 책에서는 모두 扁鵲을 盧나라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

‘盧’는 歷史적으로 두 지역을 가리킨다. 그 하나는 故國名으로 『尚書·牧誓』에 8개국을 거론하는 부분에 나타나는데⁶⁵⁾ 지금의 湖北省 南漳縣을 가리키고 ‘盧’라고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春秋時代에 齊나라에 속했던 지역으로 지금의 山東省 長清縣 일대를 의미한다⁶⁶⁾. 따라서 扁鵲과 관련하여 ‘盧’를 거론한다면 ‘盧’는 春秋戰國時代의 齊나라에 속해 있었던 山東省 長清縣 일대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上述한 “勃海郡鄭人”에서 집이 ‘鄭’에 있다는 기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扁鵲이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또 하나의 反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楊玄操의 『難經集注·序文』에서는 ‘盧扁’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당시 이전에 ‘盧扁’이 世間에서 상당히 汎稱되었던 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혹시 楊玄操의 말과 달리 ‘盧扁’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醫師인 盧氏에 관한 기록은 『列子·力命』에 실려 나온다⁶⁷⁾. 이 기록에서는 楊朱의 친구인 季梁이 병이 들었는데 季梁의 부탁으로 楊朱가 자식들에게 死生이 天命에 달려있음을 깨우쳤으나 자식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矯氏, 俞氏, 盧氏 등의 세 의사를 초빙하여 병을 치료하도록 한 내용이 실려있다. 盧氏는 “그대의 질병은 하늘 때문도 아니요, 사람들 때문도 아니며, 귀신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生命을 稟賦받아 形體를 갖게 된 것은 그 운명이 이미 하늘이 制定하여 놓음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

64) “或問黃帝終始。曰 託也。昔者 妘氏治水土而巫步多禹。扁鵲盧人也 而醫多盧。夫欲讎僞者必假眞。禹乎。盧乎。終始乎。”(揚雄, 法言, 서울, 자유문고, 1996, p.188-189.)

65) “及庸蜀羌髳微盧彭濮人”(尚書, 東京, 富山房, 1984, 卷第六 p. 11.)

66) 臺灣中華書局辭海編輯委員會, 辭海,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6, 中冊 p. 3133.

67) “楊朱之友曰季梁。季梁得疾 七日大漸。其子環而泣之 請醫。季梁謂楊朱曰 ‘吾子不肖 如此之甚。汝奚不爲我歌以曉之?’ 楊朱歌曰 ‘天其弗識 人胡能覺 匪祐自天 弗孽由人 我乎汝乎 其弗知乎 醫乎巫乎 其知之乎’ 其子弗曉 終謁三醫。一曰矯氏 二曰俞氏 三曰盧氏 診其所疾。矯氏謂季梁曰 ‘汝寒溫不節 虛實失度 病由飢飽色欲。精慮煩散 非天非鬼。雖漸可攻也。’ 季梁曰 ‘衆醫也 亟屏之。’ 俞氏曰 ‘汝始則胎氣不足 乳湏有余。病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漸矣 弗可已也。’ 季梁曰 ‘良醫也 且食之。’ 盧氏曰 ‘汝疾不由天 亦不由人 亦不由鬼。稟生受形 既有制之者矣 亦有知之者矣 藥石其如汝何。’ 季梁曰 ‘神醫也 重貺遺之。’ 俄而季梁之疾自瘳。”(列禦寇, 列子[漢文大系十三], 東京, 富山房, 1984, 卷六力命 p. 9-10.)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藥物과 鍼石으로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季梁의 병이 스스로 낫게 되었다고 하였다.

楊朱⁶⁸⁾는 戰國時代의 인물이기 때문에 盧氏도 또한 戰國時代의 人物로 볼 수 있다. 따라서 ‘盧扁’이 한사람이 아닌 ‘盧氏’와 ‘扁鵲’을 並稱한 것이며, 이후 名醫의 代名詞로 거론되었는지 의심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부분 諸葛晃의 『列子考』에서는 “盧子は 바로 扁鵲이다. 史記注에 扁鵲이 또한 집이 盧國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盧醫라고도 불리웠다. 褚澄은 ‘扁鵲이 盧나라 출신이어서 盧나라의 醫師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⁶⁹⁾라고 注釋을 달고 있다. 즉, 『列子』에 나오는 盧氏를 바로 扁鵲이라 한 것이다.

그렇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列子·湯問』에 公扈와 齊嬰의 心臟 移植手術과 관련한 記事에서 이미 扁鵲을 거론하고 있는데, 같은 책 「力命」에서는 ‘盧氏’를 거론하면서 본문의 내용 중에 ‘扁鵲’이라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諸葛晃의 注釋과 같이 ‘盧氏’가 실지로 ‘扁鵲’이라 불렸는지는 단정지어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추측컨대 季梁을 진찰했던 盧나라의 盧氏도 扁鵲이라 불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盧扁’은 바로 ‘鄭’에 집이 있었던 ‘秦越人 扁鵲’과 대비하여 ‘盧나라의 扁鵲’인 盧氏를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盧氏의 故鄉인 盧지역, 즉 春秋戰國時代의 齊나라에 속해 있었던 山東省 長清縣 일대가 다른 扁鵲의 또 다른 故鄉이 되는 것이다.

IV. ‘扁鵲’이란 名稱의 由來와 意味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扁鵲’이란 名稱의 유래에 관한 것이다. 「列傳」에서는 “醫師가 되어 어떤 때는 齊나라에, 어떤 때는 趙나라에 있었다. 趙나라에 있을 때에 扁鵲이라고 이름 붙게 되었다.”⁷⁰⁾라고 하였다. 즉, 扁鵲은 趙나라에 있었을 때 ‘扁鵲’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말한 것인데, ‘扁鵲’이란 칭호가 어떻게 유래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68) 戰國時代 魏나라 사람. 字는 子居이며 陽子나 陽生으로 불리기도 함. 墨翟이후와 孟子이전에 활동했던 사람으로,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자신을 사랑할 것을 주장하여 ‘天下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내몸의 털 한오라기도 뽑지 않겠다’고 함. 『孟子』 『莊子』 『荀子』 『韓非子』 『列子』 등에 기록이 나옴. 특히 孟子는 墨翟과 함께 正道를 閉塞시킨 異端으로 간주하였다.

69) “盧子卽扁鵲. 史記注 扁鵲又家於盧國 因命之曰盧醫. 褚澄曰 扁鵲盧出 盧醫遂多.” (列禦寇, 列子[漢文大系十三], 東京, 富山房, 1984, 卷六力命 p. 10.)

70) “爲醫或在齊 或在趙. 在趙者 名扁鵲.”

1. 黃帝時 扁鵲說

먼저 ‘扁鵲’이란 명칭이 黃帝時代의 傳說的 人物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張守節의 『史記正義』에서는 『黃帝八十一難』의 序文을 인용하여 扁鵲이 원래 黃帝 시대 名醫의 이름이었으나 후에 秦越人에 대하여 이 칭호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⁷¹⁾.

여기에서 『黃帝八十一難』의 序文은 唐代 楊玄操의 『難經集注·序文』을 말한다. 楊玄操의 序文에서는 “扁鵲은 黃帝軒轅氏 시대의 扁鵲과 서로 유사하여 ‘扁鵲’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한 집이 盧나라에 있어서 ‘盧醫’라고도 불리었다. 세상에서 혹은 ‘盧扁’을 두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것은 실제로 잘못이다.”⁷²⁾라고 하였다. 또한 明代 陳士元이 著述한 『姓觿』에서도 “‘扁’은 ‘鵲’이라고도 한다. 『姓源』에 이르기를 黃帝時 扁鵲의 후에 가운데 春秋時代에 姓은 秦이고 이름은 越人인 良醫가 있었는데, 醫術이 黃帝時의 扁鵲과 서로 흡사하여 ‘扁鵲’이라 칭하게 되었다. 집이 盧나라에 있어 盧醫라고도 칭한다.”⁷³⁾라고 하였다.

따라서 ‘扁鵲’이라는 名稱이 黃帝時代의 傳說的 名醫인 扁鵲에서 유래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唐代 이후에 들어와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黃帝時의 扁鵲이란 名醫에 대해서 『黃帝內經』에서도 한번도 언급된 바가 없고 그 밖의 唐代以前 문헌에도 이러한 내용의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⁷⁴⁾. 즉, ‘扁鵲’의 명칭이 黃帝時代의 傳說的 名醫인 扁鵲에게서 유래한다는 것은 다분히 傳說的인 이야기이며,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扁’의 意味

‘扁鵲’이란 명칭이 黃帝時의 名醫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자연스럽게 ‘扁鵲’이란 명칭은 당시의 名醫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면 ‘扁鵲’이 어떤 뜻과 의미를 가지고서 名醫를 汎稱하는 말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것이다.

71) “正義 黃帝八十一難序云 秦越人與軒轅時扁鵲相類 仍號之爲扁鵲. 又家於盧國 因名之曰盧醫也”(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扁鵲倉公列傳第四十五 p. 2785.)

72) “以其與軒轅時扁鵲相類 乃號之爲扁鵲. 又家於盧國 因名之曰盧醫. 世或以盧扁爲二人者 斯實謬矣.”(凌耀星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1.)

73) “扁 或作鵲. 姓源云 黃帝時扁鵲之後 春秋時良醫. 姓秦名越人 術與黃帝時扁鵲相類 故稱扁鵲. 家於盧國 又稱盧醫.”(陳士元, 姓觿, 北京, 中華書局, 1985, 銑韻 p. 187-188.)

74) 『詩』 『書』 『易』 『左氏傳』 『穀梁傳』 『公羊傳』 『周禮』 『儀禮』 『禮記』 등의 九經은 물론이고 『論語』 『孟子』에서도 扁鵲에 관한 言及이나 記錄은 나오지 않음.

‘扁鵲’에서 먼저 ‘扁’의 의미를 살펴보면, ‘扁’은 아무래도 ‘徧’이나 ‘遍’字와 통용되어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漢字에서는音が 서로 통해 같거나 비슷할 경우 글자를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同音通用’이라고 하며, 古字와 今字가 상호 통용되어 古字로써 今字를 대체시켜 사용된 것을 ‘古今通用’이라고 한다⁷⁵⁾. 따라서 ‘扁鵲’에서 ‘扁’字가 同音通用字나 古今通用字로 ‘徧’이나 ‘遍’字와 대체되어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즉, ‘扁’은 ‘徧’이나 ‘遍’字의 通用字로 사용되어 ‘遍歷(徧歷)’을 의미하고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뜻을 가지고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前述한 『史記·扁鵲列傳』에서도 扁鵲이 邯鄲·雒陽·咸陽을 遍歷하면서 각기 帶下醫, 耳目痺醫, 小兒醫가 되어 醫療活動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 밖의 文獻에 나타난 扁鵲의 記事에도 時代的 시점을 고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扁鵲이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환자를 치료해준 것만은 사실로 생각된다.

따라서 ‘扁鵲’에서 ‘扁’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즉, ‘扁’의 의미가 宮中이나 官 소속의 醫師가 아닌 여러 지역을 遍歷하는 별도의 ‘民間醫師’를 지칭하는 것이며, 이것이 당시 醫學이 宮中이나 官 주도에서 벗어나 民間에 傳播·發展되기 시작하는 醫學的 時代狀況의 反映이자 表出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醫學發生의 淵源은 한가지로만 국한하여 말할 수 없을 것이고 人知의 발달과 經驗의 蓄積을 통해 人類가 자연스럽게 醫學的 知識을 획득하여 갔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적인 醫學이 형성·발전되어 가는 始點에서는 宮中이나 官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周禮·天官冢宰第一』에서는 西周代 醫官의 職制를 醫師·食醫·疾醫·瘍醫·獸醫 등 다섯으로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데⁷⁶⁾, 이것은 본격적 醫學이 형성되는 과정에 宮中이나 官이 큰 역할을 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다분히 전설적인 이야기이지만 黃帝時의 岐伯·俞跗·伯高·小俞·鬼臾區·少師·桐君·雷公 등도 왕실소속의 의사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春秋時代의 醫緩·醫和·醫均 등도 왕실소속의 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⁷⁷⁾. 이렇게 처음에는 왕실이나 官 위주의 醫學이 먼저 형성되면서

75) 漢字의音が 같거나 비슷할 경우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同音通用’이라 하며, 古字인 ‘禽’字가 今字인 ‘擒’字를, 古字인 ‘直’字가 今字인 ‘值’字를 대체하여 사용된 것 등을 ‘古今通用’이라 한다.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編輯委員會, 中國文字訓詁學辭典, 서울, 東文選, 1993, p. 104-106.)

76) 洪元植·尹暢烈,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p. 43.

자연스럽게 당시 醫師들도 왕실이나 官 소속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러하던 것이 春秋時代에 들어와 宮中이나 官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점차 民間위주의 醫學으로 발전되어 갔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는 醫學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학문분야도 마찬가지로 왕실과 官 주도의 학문이 春秋時代에 들어와 점차 民間에 傳播·擴大되어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즉, 春秋時代에 王權이 失墜됨에 따라 그 구속력이나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학문·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民間에 흩어져 활동하면서 諸子百家⁷⁸⁾가 出現·爭鳴하기 시작한 것이다. 醫學과 醫術도 마찬가지로 이 무렵에 王室로부터 나와 民間에 傳授되면서 普遍的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扁鵲’의 ‘扁’은 春秋時代에 들어와 왕실이나 官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전국을 遍歷하는 별도의 民間醫, 醫師集團이 형성된 것을 指稱·意味한다고 생각된다.

3. ‘鵲’의 意味 - 巫醫關聯說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扁鵲’에서 ‘鵲’의 의미가 될 것이다. ‘鵲’은 말 그대로 ‘까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까치’가 어떻게 醫師의 代稱으로 사용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까치’가 오래 전부터 미래를 알아보는 새로 看做·認識되었다는 점이다. 『淮南子』에서는 까치가 미래를 미리 아는 새로 묘사되고 있다. 『淮南子·汜論訓』을 보면, “猩猩⁷⁹⁾은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모르고, 乾鵲은 미래는 알지만 과거를 모른다. 이처럼 각각 일장일단을 지니고 있다.”⁸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淮南鴻烈解』의 注에서도 “乾鵲은 까치이다. 사람들에게 장차 생길 일에 기쁨과 근심의 징조가 있으면 운다. 이것이 미래를 아는 것이다. 그 해에 바람이 많이 불 것을 알고 나뭇가지가 많은 곳에 등지를 틀면 사람들이 모두 그 알을 찾아서 꺼내간다. 그

77) 醫緩이나 醫和의 記事는 『春秋左氏傳』에 실려 나오는데, 모두 秦나라 사람들이었다. 醫緩은 晉景公의 병으로, 醫和는 晉平公의 병으로 晉나라의 요청에 의해 秦나라에서 파견된 醫師였다. 醫珣도 『尸子』에서 秦나라 의사로 宣王과 惠王을 치료해 준 기록이 나타난다.

78) 諸子百家의 ‘家’의 의미도 ‘私的·個人的’인 뜻을 가진 말로 학문과 기술이 정부주도에서 民間위주로 傳播·擴大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孔子는 그 출발점에 섰던 대표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79) 猩猩: 北方의 짐승 이름. 人面獸身으로 黃色을 띠며, 사람이 질주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姓字를 알며 과거사를 안다. 술을 좋아하여 사람의 술을 마시는데 취하여 붙잡히게 되어도 모른다. 그러므로 앞일을 모른다고 함.

80) “猩猩知往 而不知來 乾鵲知來 而不知往 此修短之分也” (劉安, 淮南子[漢文大系二十], 東京, 富山房, 1984, 卷第13 汜論訓 p. 20-21.)

러므로 지난 일을 모른다고 한다.”⁸¹⁾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人間訓」에서도 “대저 까마귀와 까치는 제일 먼저 그 해에 바람이 많이 불 것을 미리 알고, 높은 나무를 피하여 낮은 나뭇가지에 등지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어른이 그곳을 지날 때 새끼를 꼬집어내고 아이가 지날 때는 알을 꺼낸다. 맨 앞의 어려움에 대비할 줄은 알고 있어도 가까운 患禍를 잊고 있는 셈이다. 즉 秦나라가 대비를 갖춘 것은 까마귀와 까치의 지혜인 것이다.”⁸²⁾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까치가 아침에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는 민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中國古代에 있어서도 까치가 미래를 미리 아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까치는 미래를 미리 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名醫의 疾病에 대한 豫候(豫後)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즉, 까치의 미래를 아는 능력과 名醫의 탁월한 예후능력이 서로 유사한 상관성을 가짐으로써 ‘까치’가 名醫를 의미하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扁鵲’의 ‘鵲’이 疾病에 대한 탁월한 豫候能力을 암시하는 것으로 곧 ‘名醫’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추측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어쩐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鵲’의 미래를 아는 능력과 ‘名醫’의 탁월한 예후능력을 견주어 바로 ‘鵲’이 名醫의 代稱으로 사용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은 論理의 飛躍이나 牽強附會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鵲’이 名醫의 代稱으로 사용된 과정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몇 단계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中國醫學과 哲學』에서는 고대의 의사들이 까치의 깃털로 장식된 冠(鵲尾冠⁸³⁾)을 써서 자신들의 직업을 나타냈었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는데⁸⁴⁾, 물론 이러한 사실을 文獻史料를 통해 考證·確認할 수는 없으나 ‘鵲’의 의미와

81) “乾鵲 鵲也. 人將有來事憂喜之徵則鳴. 此知來也. 知歲多風 多巢於木枝 人皆探其卵也. 故曰不知往也.” (上揭書)

82) “夫鵲先識歲之多風也 去高木而巢扶枝 不知大人過之 則探穀 嬰兒過之 則挑其卵 知備遠難 而忘近患 故秦之設備也 烏鵲之智也” (劉安, 淮南子[漢文大系二十], 東京, 富山房, 1984, 卷第18 人間訓 p. 28.)

83) ‘鵲尾冠’은 文獻史料上에 나오는 바가 없다. 다만 『漢書·高帝紀』를 보면 高帝가 驛亭長 시절 竹皮로 만든 冠을 썼는데, 이후에 이것을 ‘劉氏冠’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 注에는 지금의 ‘鵲尾冠’이 이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鵲尾冠’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漢高祖의 ‘竹皮冠’ 또는 ‘鵲尾冠’은 ‘扁鵲’에서 ‘鵲’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高祖爲亭長 乃目竹皮爲冠 令求盜之薛治 時時冠之 及貴常冠 所謂劉氏冠也. 應劭曰 以竹始生皮作冠 今鵲尾冠是也. — 『漢書·高帝紀第一上』)

유래를 보다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설득력있는 假說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대의 의사들이 ‘까치관’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 그 과정에는 巫覡과 巫醫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까치관’을 쓴 고대의 의사들은 巫醫이거나 巫醫에서 科생된 사람들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鵲’의 미래를 豫知하는 능력으로 인해 ‘鵲’이 미래의 吉凶을 점치는 巫覡을 象徵·代表하게 되었고, 巫覡이 환자를 다루는 巫醫의 역할도 겸하면서 자연스럽게 ‘名醫’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말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豫知하는 ‘鵲’ → 吉凶을 점치는 巫覡 → 환자를 다루는 巫醫 → 專業醫師·民間醫의 象徵過程을 거쳐 ‘鵲’이 ‘名醫’의 代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鵲’의 또 다른 가능성 - 西王母·道教說話關聯說

‘鵲’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西王母와의 관련설이다. 물론 西王母는 중국고대에 나타나는 전설적인 존재로 그 이야기의 내용 역시 설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論究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면 神話와 傳說是 歷史의 黎明期를 추적할 수 있는 비밀의 화원이자, 隱喩와 象徵으로 포장된 마지막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後代에 와서는 西王母를 고귀하고 아름다운 女仙의 우두머리 정도로 간주하고 있으나 원래의 西王母는 一個 女仙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淮南子』 『爾雅』 『穆天子傳』 『竹書紀年』 등의 문헌기록을 보면 古代 중국인들이 西王母와 적어도 수백년에 걸쳐 교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西王母는 구체적인 어느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서부 崑崙山 일대(지금의 甘肅省이나 靑海일대)의 國土나 民族을 가리키는 것이며, 또 그 族長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⁸⁵⁾.

西王母와 不死藥에 관한 이야기는 『淮南子·覽冥訓』에 실려 나오는데, “羿가 不死의 仙藥을 西王母에게 청하여 얻었는데, 그의 妻 恒娥가 그것을 훔쳐서 달나라로 도망쳤다.羿는 한탄하고 망연자실하여 쫓아가지도 못하였다.”⁸⁶⁾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84) 가노우 요시미즈(加納喜光),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 69.

85) 陳起煥, 中國의 土俗神과 그 神話, 서울, 知永社, 1996, p. 44.

馬伯英外著·鄭遇悅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서울, 電波科學社, 1997, p. 22-23.

86) “羿請不死之藥於西王母 恒娥竊以奔月 悵然有喪 無以續之”(劉安, 淮南子[漢文大系二十], 東京, 富山房, 1984, 卷第六 覽冥訓 p. 17.)

부분 羿가 西王母에게 不死藥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혹시 고대 중국이 일찍부터 西域과 교통하면서 醫藥을 導入했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지는 않은가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그 醫藥은 印度醫學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는 없는지, 또 西域과의 醫藥交流를 통해 자연스럽게 西王母를 疾病을 주관하며 治愈하는 神으로써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된다.

『穆天子傳⁸⁷⁾』에서는 西王母에 대해 기술하기를 “서쪽이 험준하며, 들판에 살고 있다. 호랑이와 표범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까치와 함께 살고 있다.”⁸⁸⁾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 호랑이·표범·까치와 관련한 내용은 地理的 環境을 묘사한 단순한 記述에 그칠 수도 있지만, 혹 ‘호랑이와 표범’은 疫病을 상징하고, ‘까치’는 治療藥을 隱喩·象徴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西王母가 사람들에게 疾病을 가져다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치료를 해주는 疾病의 神, 治愈의 神으로 간주되었다면, ‘까치’는 治愈의 능력이나 醫藥을 상징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⁸⁹⁾.

최근 山東省에서 발굴된 後漢代 畫像石 가운데에 人面鳥身의 神象이 나왔는데, ‘山鵲’이란 문자가 새겨져 있고 환자에게 침을 놓고 있는 圖像이라고 한다⁹⁰⁾. 이것은 西王母에 대한 설화가 道教의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전해지면서 ‘까치’가 ‘半人半獸의 治愈神’으로 변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鵲’은 半人半獸의 治愈神으로 간주되어 醫學과 醫師를 상징하게 되었는데, 그 유래가 西王母의 說話가 신비주의적인 道教說話에 흡수되어 과생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확실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한 한 가지 가능성의 敷衍일 뿐이다.

87) 『穆天子傳』은 戰國時代에 쓰여진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며, 亡失되었다가 西晉初 武帝時(AD 281)에 지금의 河南省 汲縣에서 汲塚書(戰國時 魏襄王의 墓를 도굴하여 얻어진 竹簡書)의 하나로 출토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88) “比徂西土 爰居其野 虎豹爲群 於鵲與處”(穆天子傳[四部備要第四四冊], 北京, 中華書局, 1989, 卷三 p. 13.)

89) 古代印度의 설화에서도 새를 治愈의 能力과 관련지어 인식하는 내용이 엿보인다. 즉, 뱀과 새를 象徴的 二分法으로 분리하여 뱀이 地上을 비속하게 하는 요소를, 새가 天上의 靈妙한 영역을 각기 表象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뱀의 적수이자 독수리로 표현되는 가루다(Garuda)가 뱀을 섬멸하고 독을 무력하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원으로 데리고 가서 天上의 새를 가득 찬 가루다 기둥을 부둥켜안게 한다는 것이다. (Heinrich Zimmer著·이숙중譯, 印度의 神話와 藝術, 서울, 대원사, 1995, p. 97-102.)

90) 가노우 요시미즈(加納喜光),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1, p. 69.

V. 맺는 말

‘扁鵲’의 記事는 『史記』를 비롯해 그 밖의 여러 文獻에 수록되어 나온다. 이러한 文獻上의 扁鵲記事를 聚合해 보면 扁鵲의 活動년대는 春秋時代 初期부터 戰國時代에 걸쳐 나타나며, 적어도 다섯 사람 이상의 인물이 扁鵲이라 불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扁鵲이란 칭호를 획득했던 것은 春秋時代 初期의 인물인 秦越人이 아닌가 추측된다. 따라서 扁鵲은 어느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春秋戰國時代에 名醫를 汎稱하는 一般名辭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扁鵲’ 명칭의 由來와 意味를 추론해 보면 그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생각된다.

扁鵲의 姓名으로 거론되는 ‘秦越人’은 실제로 이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秦越人’은 魏太子의 尸厥病을 치료해준 春秋時代 初期의 인물로 추정된다. 또한 그 秦越人の 고향을 나타내는 ‘勃海郡鄭人’에서 ‘勃海’는 秦越人の 貫鄉이나 本鄉이었고, ‘鄭人’은 집이 지금의 河南省 新鄭縣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扁鵲의 故鄉을 ‘盧’로 말하고 있는 기록도 있는데, ‘盧’가 고향인 扁鵲은 『列子·力命』에 실려 나오는 ‘盧氏’로 지금의 山東省 長清縣이 고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扁鵲’이란 名稱의 由來와 意味를 살펴보면, 黃帝時의 名醫 ‘扁鵲’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은 다분히 전설적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또한 半人半獸의 扁鵲說話도 西域을 통한 醫藥의 도입이 西王母의 전설적 道教說話를 거쳐 後代에 誇張되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扁鵲’명칭의 의미는 ‘遍歷하는 民間醫’를 지칭한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扁鵲’에서 ‘扁’은 通用字로서 ‘遍’이나 ‘徧’字를 대체하여 사용된 것으로 ‘遍歷’을 의미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된다. ‘鵲’은 豫後能力이 탁월한 ‘民間醫’를 지칭한 것인데, ‘鵲’의 미래를 豫知하는 능력으로 인해 吉凶을 점치는 巫覡을 指稱象徵하게 되었고 巫覡이 患者를 다루는 巫醫의 역할을 겸하면서 자연스럽게 ‘醫師’나 ‘專業醫’의 代稱으로 변화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결론적으로 ‘扁鵲’은 ‘전국을 遍歷하는 民間의 專業醫師’라는 뜻으로 사용된 말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당시의 醫學과 醫術이 王室이나 官 주도를 벗어나 民間위주의 醫學으로 발전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論考에서는 扁鵲의 行蹟과 名義에 局限하여 考證과 考察을 했으며 扁鵲의 著作이나 醫學的 業績과 特徵, 後代에 미친 影響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병행되면 扁鵲에 관한 완전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司馬遷, 史記(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2. 凌稚隆, 史記評林, 東京, 富山房, 1984.
3. 韓非, 韓非子(漢文大系八), 東京, 富山房, 1984.
4. 劉向, 戰國策(漢文大系十九), 東京, 富山房, 1984.
5. 列禦寇, 列子(漢文大系十三), 東京, 富山房, 1984.
6. 劉向著·林東錫譯, 說苑, 서울, 東文選, 1996.
7. 班固, 漢書(二十五史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70.
8. 許慎, 說文解字,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
9. 揚雄, 法言, 서울, 자유문고, 1996.
10. 尙書, 東京, 富山房, 1984.
11. 劉安, 淮南子(漢文大系二十), 東京, 富山房, 1984.
12. 韓嬰著·林東錫譯, 韓詩外傳, 서울, 예문서원, 2000.
13. 王充, 論衡, 北京, 中華書局, 1985.
14. 雪克, 新譯公羊傳, 臺北, 三民書局, 1998.
15. 鷓冠子(四部備要第五三冊), 北京, 中華書局, 1989.
16. 陸賈, 新語(四部備要第五四冊), 北京, 中華書局, 1989.
17. 穆天子傳(四部備要第四四冊), 北京, 中華書局, 1989.
18. 陳士元, 姓觿, 北京, 中華書局, 1985.
19. 朱熹, 孟子集注, 서울, 明文堂, 1983.
20. 洪元植·尹暢烈, 增補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2001.
21. 가노우 요시미즈(加納喜光), 中國醫學과 哲學, 서울, 여강출판사, 1991.
22. 李伯聽, 扁鵲和扁鵲學派研究, 서울, 醫聖堂, 1991.
23. 凌耀星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4. 尹乃鉉, 商周史, 서울, 民音社, 1984.
25. 陳舜臣, 中國의 歷史2, 서울, 한길사, 1995.
26. 中國大百科全書語言文字編輯委員會, 中國文字訓詁學辭典, 서울, 東文選, 1993.
27. 陳起煥, 中國의 土俗神과 그 神話, 서울, 知永社, 1996.
28. Heinrich Zimmer著·이숙중譯, 印度의 神話와 藝術, 서울, 대원사, 1995.
29. 馬伯英外著·鄭遇悅譯, 中外醫學文化交流史, 서울, 電波科學社, 1997.
30. 臺灣中華書局辭海編輯委員會, 辭海, 臺灣, 臺灣中華書局, 1986.

31. 商務印書館編輯部, 辭源, 香港, 商務印書館, 1987.
32.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華學術院, 1973.